

SKT·LG U+ 초대형 M&A 예고… 유료방송 지각변동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② 방송 통신, 5G 이제 시작

5G 내년부터 성장세 본격화 전망

KT, 딜라이브 인수 추진 가능성 ↑

을 상반기 통신방송 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성과를 거두며 숨 가쁘게 달려 나갔다. 아직까지 망 구축은 초기 단계지만, 삼성전자·LG전자의 '갤럭시 S10 5G'와 'V50 5G' 등 두 종류의 5G 단말이 나오면서 5G 가입자도 100만명을 달성하기 도 했다.

아울러 글로벌 흐름에 맞춰 통신·방송 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케이블TV 업체와의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그 이후는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4월 5일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5G 가입자는 69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었다.

에릭슨이 발표한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적으로 5G 가입이 19억 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까지는 5G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에서만 300만명을 웃돌아 전세계 5G 가입자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 T월드 강남직영점 앞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10 5G' 개통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

보고서는 전 세계 5G 인구 서비스 커버리는 2024년 말 45%에 달할 것으로 봤다. 국내 기지국은 지난 4월 29일 기준 5만4202개(장치수 11만7001대)가 구축됐다.

향후 주요 쟁점은 5G 설비투자(CAPEX) 규모와 실적의 지표로 활용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PRU)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분기 이동통신 합산 영업이익은 913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고 마케팅비용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 이었다. 그러나 향후 5G CAPEX는 4~5년 동안 꾸준한 투자가 요구돼 향후 감가상각비 증가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무선 ARPU는 5G 단말이 10%를 초과하는 2020년부터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G 시대에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로 5G를 기본 플랫폼으로 산업 간 영역 구분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사업 영역은 스마트폰이 아닌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5G 전략산업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 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5G 5대 핵심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그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일어난 화웨이 리스크 또한 무역협상 재개로 인해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통신장비 부문 제재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 완화 기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구분	사업자	가입자 수 (6개월 평균)	시장 점유율%
SO	(주)CJ헬로	4,097,730	12.61
	(주)티브로드	3,120,286	9.60
	(주)딜라이브	2,044,277	6.29
	(주)CMB	1,561,671	4.81
	(주)현대HCN	1,338,696	4.12
	개별SO(9개사) (소계)	17,021,222 13,864,782	5.24 42.67
위성 방송	(주)KT KT스카이라이프	3,234,312	9.95
IP TV	(주)KT	6,861,288	21.12
	SK브로드밴드	4,652,797	14.32
	(주)LG유플러스	3,877,365	11.93
	(소계)	15,391,450	47.37
	총계	32,490,544	100.00

*2018년 하반기 기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러스와 CJ헬로 간의 인수·합병 승인 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군 31.07%, LG유플러스 계열 24.54%, SK브로드밴드 계열 23.92% 순으로 재편된다. 통신사 위주로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견조해지면 나머지 국내 케이블 TV업체들 역시 인터넷TV(IPTV) 사업자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연합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 '폭'을 통합키로 하며 국내 OTT 연합을 결성했다. 하반기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가입자 수 1300만 명 규모의 서비스가 출범하게 된다.

KT의 경우 국회에서 합산규제 제도 입 결론이 나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제작, 유통사, 방송사들에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투자와 제휴 요청이 증가하는 등 기회 요인이 부각된다"며 "기회를 살려 제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쟁 심화에 직면하게 될 국내 OTT 기업들, 코드 커팅으로 인해 가입자 이탈 우려가 있는 IPTV, 케이블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OTT 서비스의 활성화가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수출규제 소재 2개, 수입 의존도 90% 넘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 에칭가스는 한국이 최대 수출국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한 소재 3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최고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품목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감소 폭이 작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리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칭가스는 전체 수입 비중의 약 43%가 일본산이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입 중 일본산이 93.7%였다. 총 수입액 1296만 달러 중 1214만 달러어치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

반도체 주요 소재의 국가별 수입비중(2019년 1~5월)

국가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총계	112,663	100.0	총계	64,786	100.0	총계	12,964	100.0
일본	103,516	91.9	중국	30,025	46.3	일본	12,142	93.7
미국	8,325	7.4	일본	28,436	43.9	대만	508	3.9
벨기에	486	0.4	대만	6,276	9.7	중국	180	1.4
대만	259	0.2	인도	35	0.1	미국	76	0.6

/자료=한국무역협회

재인리지스트는 91.9%를 일본에 의존했다. 전체 수입액 1억 1266만 달러 가운데 1억 315만 달러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는 전체 수입 중 43.9%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중국산 수입이 3003만 달러로 전체 수입인 6479만 달러의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일본산도 2844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리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90%가 넘는다. 리지스트의 수입 비중은 2010년 95.5%에서

91.9%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같은 기간 97.7%에서 93.7%로 각각 약 4%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 2017년 46.2%까지 떨어졌던 대일 수입 의존도가 최근 2년 사이 다시 93%대로 올라섰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의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비중은 각각 11.6%, 85.9%, 22.5%였다. 특히 에칭가스의 경우 한국이 일본의 최대 수출국으로 조사됐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보험사, 고객 건강정보 수집

운동·식단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 간담회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해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